



2022. 7. 19 (화)

운송 Analyst 배기연

RA 오정하

02. 6454-487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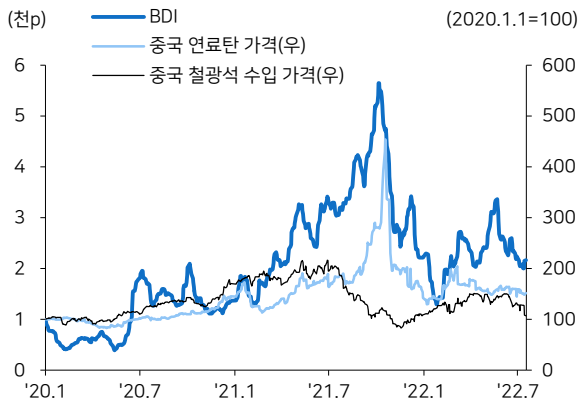
02. 6454-4873

kiyeon.bae@meritz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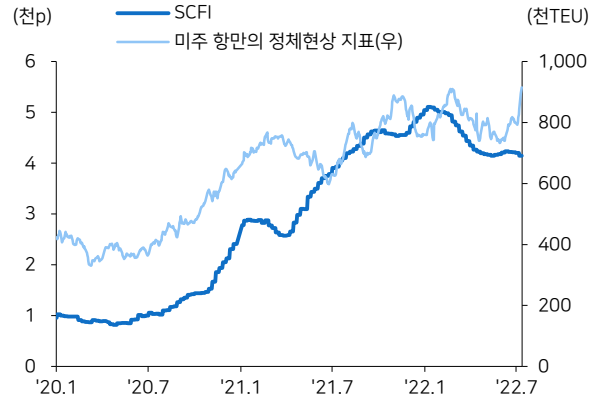
jungha.oh@meritz.co.kr

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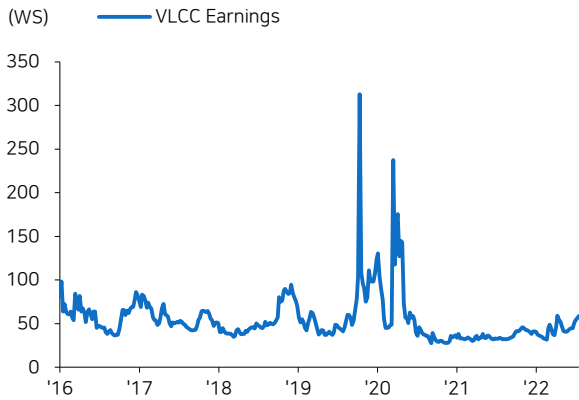
건화물운임(BDI) 2,162.0p(+12.0p DoD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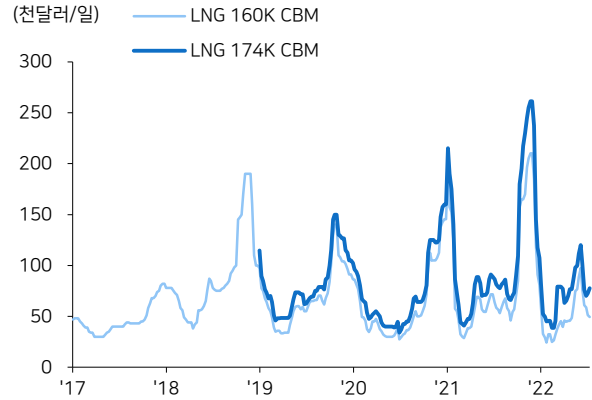
컨테이너운임(SCFI) 4,074.7p(-69.2p WoW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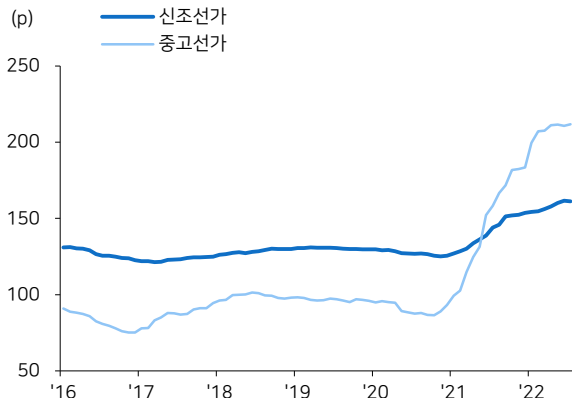
VLCC Spot Rate 58.6p(+2.3p WoW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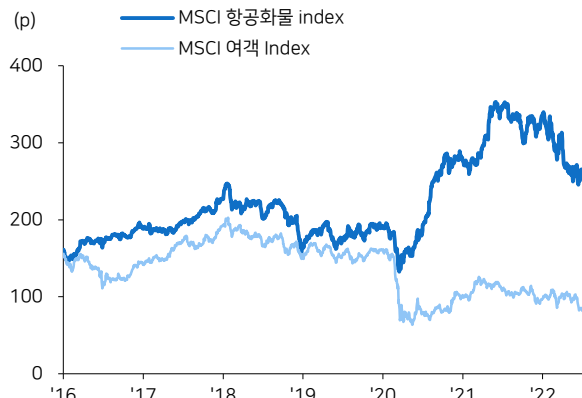
LNG Spot 운임 49.5p(-1.8p WoW) 77.8p(+5.3p WoW)



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0.9p(-0.3p WoW) 211.0p(-0.7p WoW)



항공시장 지표 257.1p(+0.3p DoD) 85.3p(+1.5p DoD)



자료: Clarksons, Bloomberg, 메리트증권 리서치센터

##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

### No capacity: Saudi Arabia cannot expand oil production beyond 13 million bpd

빈 살만 왕세자가 사우디아라비아는 1,300만배럴/일에서 추가 생산여력이 없다고 발표했다고 보도됨. 현재 생산 가능한 1,200만배럴에서 2027년까지 100배럴 증산을 결정한 상황이라고 설명함. (Upstream)

### China cuts oil, gas imports as energy demand growth slows

중국의 강력한 방역정책 속 수요가 감소하며 원유 및 가스 수입량을 줄이고 있다고 보도됨. 글로벌 2위 에너지 수입국인 중국은 2022년 상반기 2.52억톤의 원유를 수입했는데, 전년동기 대비 3.1% 감소함. 가스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10% 감소함.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평소 대비 낮은 수요 증가율로 중국 트레이더의 Spot시장 성약 체결율이 적은 상황으로 언급됨. (Upstream)

### Europe seeks to strengthen Latin America ties as oil routes shift

유럽연합 외교부 장관들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에서의 에너지 수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됨. 유럽연합은 연말까지 러시아 원유 수입량을 90% 줄이기로 결의한 바 있음. Gibson Shipbrokers에 따르면 더 길어진 항로로 탱커 운임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. (Tradewinds)

### Chinese car carrier calls climb 40% as restrictions ease

중국 방역정책이 완화되며 자동차운반선의 중국 방문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됨. 자동차운반선 항만대기선박이 2022년 7월중순 기준 지난 4~5월 대비 40% 이상 증가한 수준으로 알려짐. 중국이 전기차 제조 허브로 부상하며 글로벌 자동차 해상물동량시장에 중요해지고 있다고 알려짐. Fearnley Securities는 최근 자동차 수출량의 증가는 중국이 방역보다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언급함. (Upstream)

### 현대미포조선, 1,395억원 규모 컨선 3척 수주

현대미포조선이 아시아소재 선사와 1,800TEU급 컨테이너선 3척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함. 총 1,395억원(1.07억달러)규모 계약으로 2024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임. (뉴스스)

### Japan's largest shipowner returns to Hyundai Mipo for MR tanker newbuilding quartet

현대미포조선이 수주한 50,000DWT급 MR탱커 4척의 선주는 일본 최대 선사인 Nissen Kaiun으로 보도됨. 총 1.7억달러계약으로 2024년 9~12월 사이 인도될 예정임. 현대베트남조선에서 건조될 예정임. (Tradewinds)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